

격 려 사

자 승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제3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의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만 불자가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한국불교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찬불합창단들이 정진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기량을 선보이는 『부산전국불교합창제』는 찬불음악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35곳 1,500여 명에 달하는 찬불합창단원으로 구성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찬불가 보급과 대중화의 첨병으로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의 구성에도 주도적으로 동참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찬불가 보급과 음성포교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역대 임원들과 제3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윤순 회장님 이하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크게 치하합니다.

합창은 부처님 법을 꼭 닮았습니다.

어느 하나가 크게 뛰어나거나 어느 하나가 조금 모자라도 합창은 그 하나 하나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융무애이며 화쟁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조금 죽이고 남의 목소리에 귀기우리며 합창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효성사께서 그토록 부르짖던 화쟁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제각기 자신만 옳다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불협화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맑은 음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은 찬불합창으로 다툼이 있는 곳엔 화해를, 미움과 원망이 넘치는 곳엔 용서를, 아픔과 불행은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행복바이러스를 이 사회 곳곳에 전파하여 불협화음의 이 사회를 향기롭게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온 인류가 행복한 부처님 세상! 바로 합창단여러분들의 맑고 밝은 음성공양으로 앞당겨 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3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해주신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스님을 비롯한 원로대덕스님과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발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